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Resiliency)에 관한 연구*

전 미 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별이란 인생에서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사별은 가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초래한다. 즉,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모든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매우 스트레스가 큰 생활사건이고, 당면한 위기이다. 가족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알콜, 담배, 약물 등의 사용을 높이고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슬픔과정을 극복할 수 없도록 기능수준을 낮춤으로서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노화로 인한 사별과 달리 암과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을 가져와 가족체계 내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는 스트레스와 위기를 유발하게 되는데, 죽음은 예견된 것이든 아니든 항상 가족을 혼란시킨다.

그러나 죽음은 지금까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며, 선행 연구는 주로 임종자 또는 사별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있고, 몇몇 연구는 고인과 사별자 간의 양자간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신학적 접근으로서 사별가족의 목회상담에 대한 연구가 소수 시도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신학적 측면에서 사별가족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할 뿐 실증적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이 한 단위로서 사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지, 또한 무엇이 사별의 적응과정을 다르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사별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시키고 위기상황 속에서 사별가족의 적응을 촉진시켜주기 위하여 가족의 복원(resiliency)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고, 사별이라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적응 현상을 가족 스트레스 이론의 최근이론인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 McCubbin & McCubbin, 1991)을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별가족에서 복원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복원모델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우리나라 가족체계 내에서 암으로 인한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를 파악함으로써 사별의 위기를 가족 스스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별가족 간호중재를 모색하고자 한다.

* 1997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요약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사별가족의 슬픔경험과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가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사별가족의 슬픔경험과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가 사별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가 사별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4)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사별가족의 슬픔경험과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 간에는 **순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별가족의 슬픔경험과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는 사별가족의 복원인자[#]와 사별가족의 적응에 부정적 주효과(**negative main effect**)를 나타낼 것이다.

위의 복원 인자란 가족의 강인성, 가족의 관리자원, 사회적 지지, 가족의 인지평가,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을 말한다.

부가설. 사별가족의 슬픔경험은 가족의 강인성(가설 2-1), 가족의 관리자원(가설 2-2), 사회적 지지(가설 2-3), 가족의 인지평가(가설 2-4),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가설 2-5), 사별가족의 적응(가설 2-6)에 부정적 주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사별가족의 누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강인성(가설 2-7), 가족의 관리자원(가설 2-8), 사회적 지지(가설 2-9), 가족의 인지평가(가설 2-10),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가설 2-11), 사별가족의 적응(가설 2-12)에 부정적 주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는 사별가족의 적응에 긍정적 주효과(**positive main effect**)를 나타낼 것이다.

부가설. 가족의 강인성(가설 3-1), 가족의 관리자원(가설 3-2), 사회적 지지(가설 3-3), 가족의 인지평가(가설 3-4),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가설 3-5)은 사별가족의 적응에 긍정적 주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 간에는 **순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기틀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McCubbin & McCubbin, 1991)의 적응 단계를 근거로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 1>과 같으며, 개념적 기틀로부터 도출된 가설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모형을 간결히 하기 위하여 복원인자 간의 상관관계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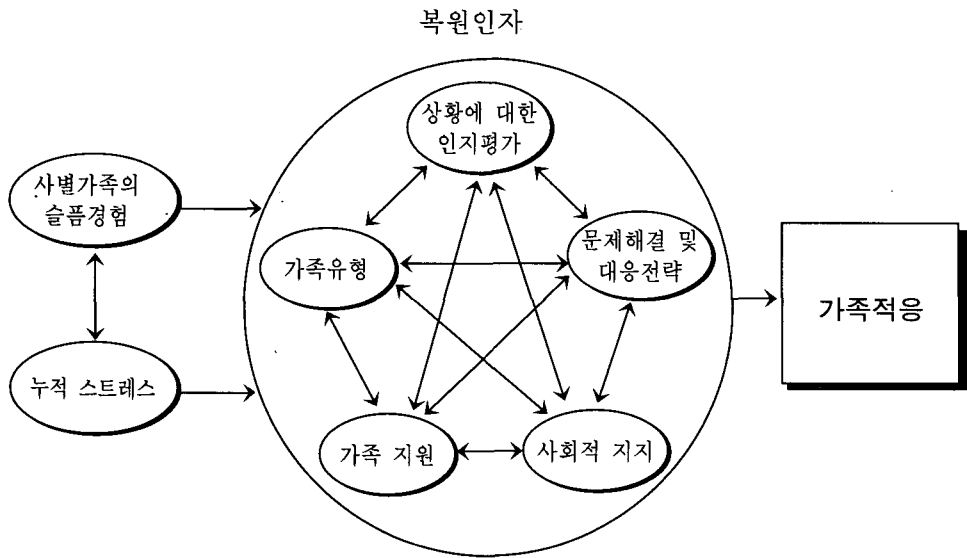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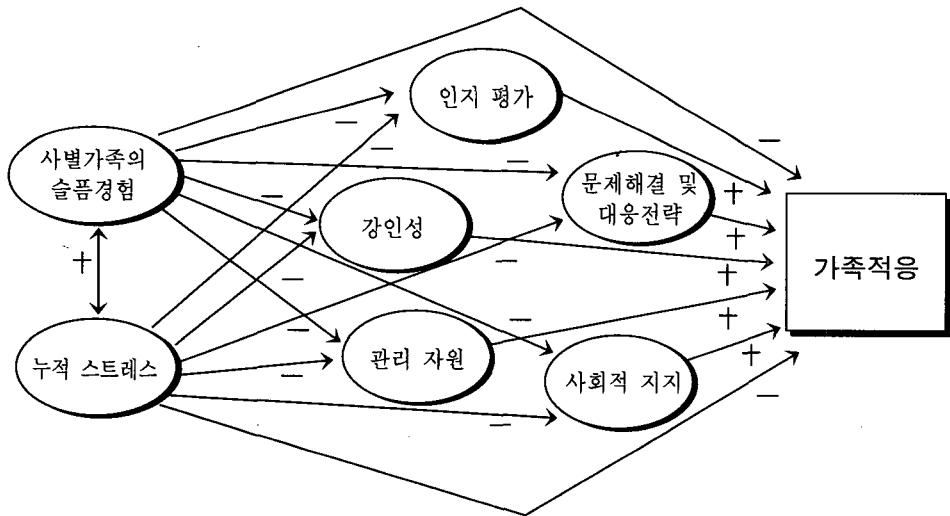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은 1996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였으며, 서울시에 있는 3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 및 서울, 경기, 청주, 대구에 위치한 6개 호스피스 단체, 그리고 개인적 접근을 통하여 암으로 사별한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사별가족 구성원 중 주정

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임의추출하였으며 사별 후 2년 이내의 가족으로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14부였으며, 이중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총 106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분석과 Simple regression을 이용, Path analysis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별가족의 슬픔경험은 가족의 누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순상관관계($r = .31, p = .001$)를 나타내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사별가족의 슬픔경험은 복원 인자인 가족의 강인성($\beta = -.51, p = .000$), 가족의 관리자원($\beta = -.32, p = .000$), 사회적 지지($\beta = -.28, p = .003$),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beta = -.35, p = .000$)에 각각 유의한 부정적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별가족의 슬픔경험은 사별가족의 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주효과($\beta = -.28, p = .003$)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별가족의 누적 스트레스는 복원 인자인 가족의 강인성($\beta = -.34, p = .000$), 가족의 관리자원($\beta = -.40, p = .000$), 사회적 지지($\beta = -.27, p = .005$),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beta = -.23, p = .017$)에 각각 유의한 부정적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별가족의 누적 스트레스는 사별가족의 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주효과($\beta = -.27, p = .005$)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별가족의 슬픔경험이 가족의 인지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주효과($\beta = -.09, p = .365$)와 사별가족의 누적 스트레스가 가족의 인지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주효과($\beta = -.14, p = .148$)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2-1에서 2-12 중 가설 2-4와 가설 2-10은 기각되었다.

3. 사별가족의 복원 인자인 가족의 강인성($\beta = .38, p = .000$), 가족의 관리자원($\beta = .31, p = .001$), 사회적 지지($\beta = .30, p = .002$),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beta = .22, p = .022$)은 사별가족의 적응에 각각 유의한 긍정적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족의 인지평가가 사별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주효과($\beta = .12, p = .203$)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3-1에서 3-5 중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4. 사별가족의 강인성은 가족의 관리자원($r = .71, p = .000$), 사회적 지지($r = .48, p = .000$), 가족의 인지평가($r = .46, p = .000$),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r = .52, p = .000$)과, 그리고 사별가족의 관리자원은 사회적 지지($r = .58, p = .000$), 가족의 인지평가($r = .52, p = .000$),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r = .57, p = .000$)과, 사회적 지지는 사별가족의 인지평가($r = .38, p = .000$),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r = .48, p = .000$)과, 사별가족의 인지평가는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r = .53, p = .000$)과 각각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또한 복원 인자 중 가족의 강인성이 사별가족의 적응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관리자원, 사회적 지지,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 순으로 각각 사별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원 인자 중 가족의 인지평가는 사별가족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복원 인자 간의 상관관계만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앞으로 인한 사별가족의 복원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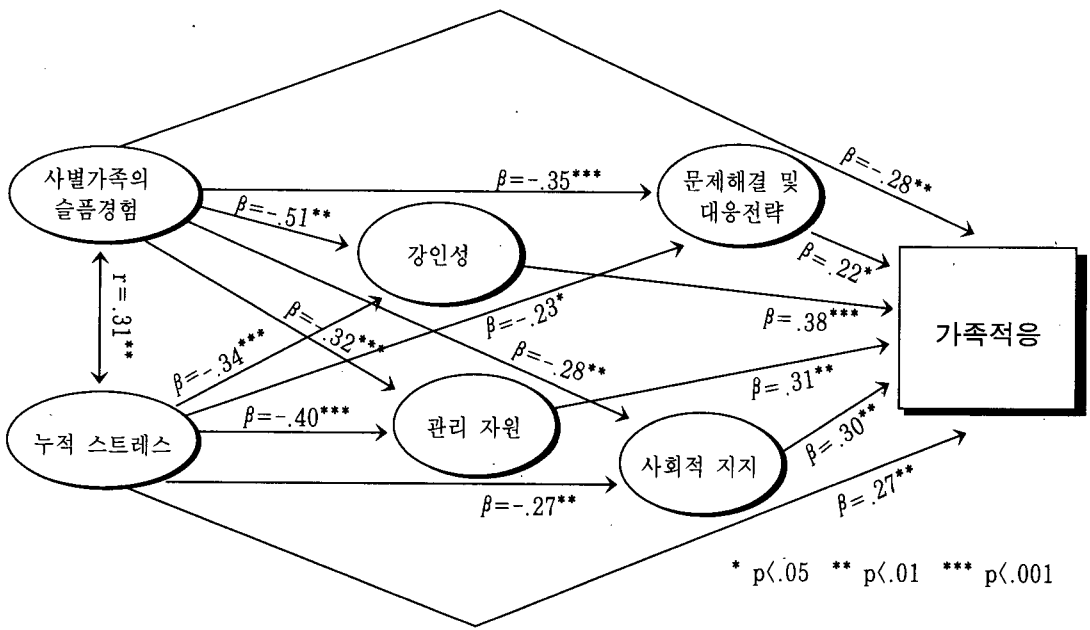


그림 3. 암으로 인한 사별가족의 복원 모형

V. 결론 및 제언

이와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을 위한 간호중재시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확인된 복원 인자를 강화시키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히 사별가족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강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관리자원과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을 증진시켜주기 위하여 병원의 추후간호관리, 또는 호스피스 간호의 일환으로 사별가족 자조집단이나 간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별가족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의 힘과 능력을 증진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사별가족의 다양한 가족구조와 기능 속에서 그들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가족 고유의 능력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다 숙련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간호중재에 있어서 가족의 수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며, 사별가족을 지지하는 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형과 차이를 나타낸 복원 인자인 가족의 인지평가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와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가족의 인지평가나 가족관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연구를 통하여 가족의 인지평가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차이를 밝힘으로써 횡문화적 관점에서 복원모형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